

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영학
나사렛대학교 기독교학부

The Effect of Poverty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Activities

Young Hak Kim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2021년에 진행된 16년차도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4,234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전근성, 2021)를 지지하는 분석 결과이다. 둘째, 조절변수인 종교활동이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빈곤 노인에 비해 빈곤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폭이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활동 참여로 비빈곤, 빈곤 노인의 우울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럼에도 빈곤 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을 종교활동으로 전부 다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우울 감소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종교적 활동 등의 정책적인 제도의 연구와 시행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effect from poverty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4,234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based on 16th year data obtained in 2021 by the Korea Welfare Pan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overty for the elderly was confirmed as having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epression, which is a result supporting a previous study(G. Jeon, 2021). Second, religious activity (a moderating variabl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The elderly who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had less depression overall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depression felt by the elderly who were poor was stronger in the elderly who did not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than in the elderly who are not poor. In addition, although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can reduce overall depression in both non-poor and poor elderly, it is difficult to allay all depression felt by the poor through religious activities. This suggests a need to consider various factors for reducing depression in a complex wa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for research and for implementation of policy-based systems, such as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activities, to address pover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Keywords : Older Adults, Poverty, Depression, Religious Activities,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Young Hak Kim(Korea Nazarene Univ.)
email: yhkim@kornu.ac.kr

Received June 24,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July 28,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45%를 넘어, 203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1.6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1].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 빈곤률은 4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빈곤률을 보여준다[2]. 복지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의 경우 노인 빈곤률은 5%, 미국 23.1%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노인의 빈곤률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3].

노인의 빈곤과 더불어 주시하여야 할 것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노인의 우울은 노인에게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신건강문제로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중 65세 이상 노인 중 33%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어, 노년기의 삶의 무력감과 절망감,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2021년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자살인구는 연령대별로 특히 50대가 2,837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그 중에 8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4]. 자살한 사람의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34.7%)와 경제문제(26.7%)가 1, 2위로 나타났고,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를 보여주고 있다[3].

노인의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빈곤노인은 비빈곤노인 보다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며 [5-8], 소득수준이 낮고 빈곤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우울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자신의 건강, 자산, 학력, 종교, 가족들과의 생활정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12-20]. 특히, 노인의 건강과 자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과 경제적 빈곤이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낮추지만, 종교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13], 노인의 우울을 낮춤을 통해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과의 비교 연구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소득 및 자산에서 상대빈곤 기준으

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30% 후반까지 높은 우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6]. 최근 독거노인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빈곤 역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독거노인이 비빈곤 독거노인보다 우울감을 더 느끼고, 건강상태도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20,21]. 또한 빈곤여성노인과 비빈곤여성노인과의 비교 선행연구에서 여성노인의 빈곤 역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 여성의 우울감이 비빈곤 여성의 우울감보다 높으며[22], 자산빈곤을 경험하는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23].

이처럼 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또는 사회참여의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이전의 연구[24]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가 연구하는 본 논문에서도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종교활동을 하는 참여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은 53.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종교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종교에서의 신앙의 대상인 신적인 존재와도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모임의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획득하여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얻게 된다[25]. 이렇듯 노인은 중장년기때처럼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26]. 활동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역할과 활동의 강제적인 축소는 노인에게 문제를 야기시킨다[26]. 본 연구는 노인이 적극적인 활동, 그 중에서도 종교활동을 통해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감이 감소할 것이며, 종교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종교적 믿음과 영적 경험, 영성으로 인해서 노인의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빈곤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 종교활동은 조절효과를 갖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진행된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27].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의되는 노인의 나이인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65세 미만인 응답 6,541개를 제거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않은 응답 238개를 제거하여 총 4,23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2 연구모형

노인의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의 Fig. 1에서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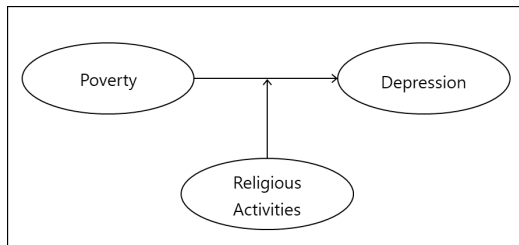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3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는 한국복지패널에서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된 우울감을 사용하였다. 우울감 관련 문항은 한 주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어느 정도로 우울감을 느끼는지를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11개의 우울감 문항 중 2개의 역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11개의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값이 0.987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 값이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의 유저 가이드를 바탕으로 우울감 변수는 11개의 우울감 문항을 다 더한 뒤 (20/11)을 곱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은 저소득층 가구로 분류하고, 그 외는 일반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판단하여 1로 측정하고, 일반 가구는 0으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종교활동은 한국복지패널의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종교관련 비용의 지출 여부를 더미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응답자는 각 종교의 교리로 인해 종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기독교의 경우 개신교에서는 십일조를 바치고,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을 바치게 된다. 그 외에 불교에서도 시주, 보시, 공양과 같은 종교관련 비용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한 2021년의 상황상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종교활동보다는, 비대면·비접촉으로도 수행 가능한 종교관련비용으로 종교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종교관련 비용의 지출이 다소 얼마라도 있는 경우에는 1, 종교관련 비용의 지출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연령, 장애여부, 교육수준, 종교유무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탄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본 패널조사가 진행된 2021년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측정하였다. 장애여부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16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1, 비장애인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상 표본들의 빈도수를 감안하여 중학교 졸업 수준을 기준으로 중학교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교육단계 졸업 시 1, 초등학교 졸업을 포함하여 그 이하의 교육수준의 경우에 0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여부를 통제함으로써 종교활동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종교여부는 한국복지패널의 '종교 여부' 문항을 바탕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의 빈곤과 우울감의 관계,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호작용항 산출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진행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빈곤 노인은 2,58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0.9%를 차지하였다. 종교가 있는 노인은 2,305명(54.4%)이며,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1,739명으로 41.1%를 차지하였다. 노인의 성별은 남성이 1,568명(37.0%), 여성이 2,666명(63.0%)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는 76.748세이며, 연령의 표준편차는 7.134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699명으로 전체의 16.5%에 해당한다. 교육수준으로는 중학교 졸업 미만이 2,363명(55.8%) 중학교 졸업 이상은 1,871명(44.2%)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Mean)	% (SD.)
Poverty	Yes	2,580	60.9
	No	1,654	39.1
Religious	With	2,305	54.4
	Without	1,929	45.6
Religious Activities	Yes	1,739	41.1
	No	2,495	58.9
Gender	Male	1,568	37.0
	Female	2,666	63.0
Age		(76.748)	(7.134)
Disability	Yes	699	16.5
	No	3,535	83.5
Education	Else	1,871	44.2
	Under Middle school	2,363	55.8
All		4,234	100.0

3.2 분석결과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울과 빈곤과의 관계는 정(+)의 유의미한 관계($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과는 부(-)의 유의미한 관계($p<0.001$)로 나타났다. 빈곤과 종교활동은 부(-)의 유의미한 관계($p<0.001$)가 있음이 나타났지만, 이는 두 변수간의 관계만을 확인한 것임으로 다른 변수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검증을 수행한 결과, 최소값은 1.013, 최댓값은 3.109로 10 미만의 값이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 그리고 종교활동의 조절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에 제시되고 있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우울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교육수준, 종교 유무는 부(-)의 유의한 값을, 연령과 장애 여부는 정(+)의 유의한 값을 보고하고 있어서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우울에 대한 노인 빈곤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beta=3.54$, $p<0.001$). 즉, 노인이 빈곤할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결과로 나왔으며, 이는 과거 전근성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3]. 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원인 중 하나로 빈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소득수준의 노인에 비해 빈곤한 노인이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Var.	M.	SD.	1	2	3	4	5	6	7
1. D.	30.012	10.103	1						
2. P.	0.610	0.488	0.269***	1					
3. R.A.	0.440	0.492	-0.116***	-0.102***	1				
4. Gender	0.370	0.483	-0.185***	-0.150***	-0.043**	1			
5. Age	76.748	7.134	0.228***	0.362***	-0.077***	-0.046**	1		
6. Dis.	0.170	0.371	0.112***	0.077**	-0.013	0.070**	0.046**	1	
7. Edu.	0.441	0.496	-0.207***	-0.278***	0.122***	0.339***	-0.300***	-0.058***	1
8. W.W.R.	0.540	0.498	-0.044**	-0.067***	0.629***	-0.127***	-0.038**	-0.006	0.055***

* $p < 0.1$, ** $p < 0.05$, *** $p < 0.001$;

D.=Depression, P.=Poverty, R.A.=Religious Activities, Dis.=Disability, Edu.=Education, W.W.R.=with/without Religion

Table 3. Regression Analysis: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Activities

Var.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β	s.e.	β	s.e.
Constant	11.74***	1.72	14.90***	1.72	15.10***	1.72
Gender	-3.37***	0.33	-3.02***	0.32	-3.01***	0.32
Age	0.26***	0.02	0.19***	0.02	0.18***	0.02
Disability	2.96***	0.39	2.68***	0.39	2.67***	0.39
Education	-1.76***	0.33	-1.27***	0.33	-1.14***	0.33
with/without Religion	-1.05***	0.29	-0.84**	0.29	0.42	0.37
Poverty			3.54***	0.32	0.39***	0.41
Religious Activities					-1.46**	0.51
Poverty * Religious Activities					-0.99*	0.60
Adj-R ²	0.104		0.128		0.134	
n	4,234		4,234		4,234	

* $p < 0.1$, ** $p < 0.05$, *** $p < 0.001$

모형 3에서는 조절변수인 종교활동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모형 3에서의 노인 빈곤과 종교활동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부(-)의 결과($\beta = -0.99$, $p < 0.1$)가 나오므로 인해 노인의 빈곤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종교활동이 조절효과로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 Fig. 2에서 종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그래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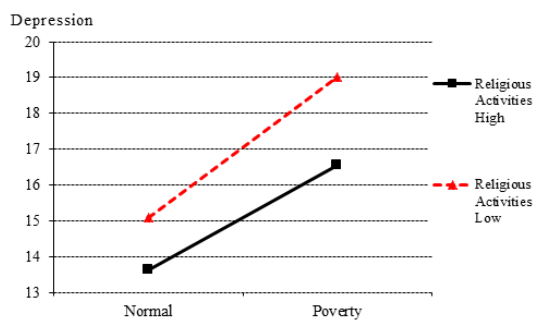


Fig. 2.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at Different Levels of Religious Activities

먼저 종교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둘 모두에서 우상향의 그래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일반 소득수준의 노인에게 빈곤수준의 노인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느끼고 있음을 제시하며, 이는 Table 3의 모형 2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과도 일치한다.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의 선은 검은 실선으로, 종교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인 붉은 점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의 경우 빈곤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게 비해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빈곤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는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빈곤한 노인에게 비해 확연히 낮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비해 보다 많은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빈곤 노인에게 빈곤노인이 느끼는 우울이 더 크며, 그 증가폭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비해 더 크게 증가한다. 즉, 비빈곤 노인에게 빈곤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이 커지는 증가폭이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종교활동 참여 빈곤 노인의 우울이 종교활동 미참여 비빈곤 노인의 우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종교활동 참여가 기본적으로 비빈곤, 빈곤 노인의 우울을 모두 다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빈곤 노인의 경우 느끼는 우울감은 종교활동으로 전부 다 해소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빈곤 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을 통한 우울감소 뿐 만 아니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도 동시에 고려해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울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추가분석

본 연구는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수집된 패널데이터이므로, 코로나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 결과는 코로나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므로 코로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변수인 빈곤을 왜곡시킬 만큼 강하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하여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의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패널자료와 코로나 이후에 진행된 본 연구의 대상연도인 2021년의 패널자료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9년에 응답한 패널참가자 중, 2021년에도 동일하게 참가한 응답자를 대상만을 매칭하여 우울에 대

한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고 있다. 2019년의 우울 평균은 36.06(표준편차는 6.156), 2021년의 우울 평균은 37.16(표준편차는 6.686)으로 나왔으며, 두 값의 평균차이는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Table 4. Paired Sample T-Test for Depression

Var.	Mean	N	sd.	s.e.	corr.	p
2019	36.06	3,929	6.156	0.098	0.379***	0.000
2021	37.16		6.686	0.107		

* $p < 0.1$, ** $p < 0.05$, *** $p < 0.001$

다음으로 2019년의 65세 이상 노인과 2021년의 65세 이상 노인을 비교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고 있다.

Table 5에 따르면, 우울과 종교활동, 연령은 2019년과 2021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음이 나타났고, 빈곤과 성별, 장애여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활발한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종교관련 비용으로 측정한 것인 만큼 노인이 비대면으로 종교 관련비 지출 수단을 수월하게 사용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5. Independent Sample T-Test

Var.	Mean		sd.		t	p
	2019	2021	2019	2021		
Depression	29.178	30.027	9.640	9.985	-4.062	0.000
Poverty	0.62	0.61	0.485	0.487	0.997	0.319
Religious Activities	0.510	0.409	0.499	0.491	9.580	0.000
Gender	0.37	0.37	0.183	0.483	0.054	0.957
Age	76.41	76.78	6.785	7.065	-2.548	0.011
Disability	0.16	0.17	0.370	0.373	-0.409	0.682

* $p < 0.1$, ** $p < 0.05$, *** $p < 0.001$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65세 이상 노인 4,49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빈곤이 우울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빈곤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아진다는 장산대의 연구결과[10], 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쳤기에 일반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난 전근성의 연구결과[3], 그리고 여성노인을 주제로 한 이주미, 강예은, 김태완의 연구[16], 여성노인의 우울감에는 자산빈곤이 영향을 주고 있고, 남성 노인에 비해 두 배정도 높게 우울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빈곤과 종교활동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beta = -0.9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인의 우울수준이 기독교노인이 비기독교노인보다 2배 정도 낮게 나타난 박선애의 연구결과[13], 종교가 있는 노인은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종교가 없는 노인과 비교하여 우울수준이 낮았다는 전미애의 연구결과[28],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의 우울발생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노인과 비교하여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인지장애 노인의 우울발생 위험이 0.74배 낮게 나타났다는 김영미의 연구결과[29]와 동일하다. 그러나 위의 Fig. 2에서 확인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노인과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 둘 모두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보다 더 높은 우울을 느끼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비빈곤 노인에 비해 빈곤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이 커지는 증가폭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 비해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종교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 더 급격하게 우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듯 종교활동 참여가 기본적으로 비빈곤, 빈곤 노인의 우울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지만, 그럼에도 빈곤 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을 종교활동으로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우울 감소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더불어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빈곤이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선행연구 [3,1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로 인해 노인의 빈곤과 우울 관련된 문헌

의 확장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우울을 살피는데 있어 비빈곤 노인에 비해 빈곤노인이 보다 취약하므로 더 많은 관심과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빈곤과 종교의 상호작용항은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박선애[13], 전미애[28], 김영미[2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노인의 경제정책과 빈곤노인의 우울 감소와 예방에 종교활동을 고려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Fig.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종교활동 만으로는 충분한 우울감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울감이 극적으로 감소하였더라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곤 노인은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빈곤 노인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우울감을 느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빈곤노인정책에 종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는데에 실무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21년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상황에서 한국복지패널의 2021년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코로나 19 이전의 팬데믹을 경험해보지 않은 노인들의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양한 통제 상황에서 경험한 사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상기 기술한 의의가 있음에도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인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살펴본 조절변수인 종교활동 문항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종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중요성과 선행연구의 미흡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측정틀을 따로 수행할 수 없고 한 번에 많은 문항을 수집하는 패널데이터 자체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특정 지점인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진행된 연구로, 분석결과 해석에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문항도 추가하고 그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을 우울감이 극복되는지, 그 극복의 시기가 빈곤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종단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Older Adults [Internet]. Statistics Korea,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accessed Mar. 22, 2020)
- [2] H. Kwon, "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Isolation and Pover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6, No.3, pp.135-160, 2019.
- [3] G. Je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Guarante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2, No.4, pp.1-14, 2021.
- [4]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Annual Report: 2021.
- [5] S. Lee, S. Lee,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types and sources on the depression and self-respect in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5, No.3, pp.71-95, 2014.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4.45.3.71>
- [6]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Trajector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7, No.3, pp.617-635, 2017.
- [7] Y. Lim, H. Yoo, "Process of Old Age Stres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 Focus on Mediator of Social Support, Master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2, No.1, pp.123-149, 2017.
- [8] B. Kim,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ellness, Vol.15, No.4, pp.695-706, 2020. DOI: <https://doi.org/10.21097/ksw.2020.11.15.4.695>
- [9] H. Kim, "Depress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oeconomic Deprivati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2, pp.231-247, 2019.
- [10] C. Chang, "The Influences of Pover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Vol.22, pp.63-80, 2019.
- [11] H. Hwang,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rotestant Elderly in Korea: A Comparison of Cognitively Normal Group and Cognitively Impaired Group",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54, No.1, pp.247-271, 2022.
- [12] M. Park, "Effect of Latent Class Typologies of Social Activities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 Comparison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2, No.2, pp.191-214, 2017.
- [13] S.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between the Level of Health and Economy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 The Comparison of

-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Theology and Society, Vol.32, No.3, pp.141-192, 2018.
- [14] J. Min, "The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the elderly's quality of lif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Theology and Praxis, No.61, pp.411-441, 2018.
- [15] S. Lee,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Status and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the Elderl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771-779, 2018.
- [16] J. Lee, Y. Kang, T.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sset and depression in elderly women",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Vol.13, No.1, pp.145-178, 2021.
DOI: <https://doi.org/10.22791/ewhagl.2021.13.1.005>
- [17] M. Kwon, K. Se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Comparison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7, No.3, pp.226-235, 2020.
- [18] J. Kim, "The effect of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on depression on elderly living in Jeju: A comparison of aged 65-74 years and 75+ years", Health & Welfare, Vol.23, No.2, pp.7-33, 2021.
DOI: <https://doi.org/10.23948/kshw.2021.6.23.2.7>
- [19] J. Kim,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depression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of elderly living in Jeju",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6, No.2, pp.9-43, 2021.
DOI: <https://doi.org/10.21194/kjgsw.76.1.202103.9>
- [20] S. Won, "The role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520-526,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6.520>
- [21] M. Kim, "A Study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y of Pover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 Focusing on Comparison of Household Types", Alcohol & Health Behav Res, Vol.20, No.1, pp.93-103, 2020.
- [22] S. Won, I. Song, "The Effect of Poverty on Depression of Female Older Adults: Health-related Behavior as a Mediat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 pp.510-518, 2022.
- [23] J. Lee, Y. Kang, T.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sset and Depression in Elderly women",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Vol.13, No.1, pp.145-178, 2021.
- [24] D. Kang, "Effect of Religion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5, pp.212-221, 2020.
- [25] Y. Son, "A Study on the Effect of Changes in Religion on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36, pp.183-202, 2007.
- [26] R. J. Havighurst,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Vol.8, No.2, pp.67-71, 1968.
DOI: <https://doi.org/10.1093/geront/8.2.67>
- [2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Welfare Panel Study Greeting 16th survey dat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
- [28] M. Jeon,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ehold Income and Religion on the Depression and Happiness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Vol.39, pp.287-312, 2019.
- [29] Y. Kim, "The effects of religious activity on mental health in cognitive impairment elderl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8, pp.805-821, 2020.

김 영 학(Young Hak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독일 Kirchliche Hochschule Bethel (Dr. theol.)
- 2003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관심분야>

종교, 장애, 노인정책, 정신건강